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1년 9월)

* 서면 제출일 : 2021. 9. 19.(금)

* 총원 15명 중 8명 참여

* 참여 위원 : 김요수, 김유선, 김형순, 류한호,정은진, 최영호, 최정욱, 한문철(8명)

* 시청자위원회의 의결로, 2021년 9월 시청자위원회 월례회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대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의견 제출로 대신함

□ 김요수 위원

-‘무등산을 사랑하자’ 캠페인(김홍빈 편)

우리에게 도전과 열정을 남기고 산으로 떠난, 산악인 김홍빈 대장을 기리는, 그의 철학을 짧게나마 돌아보는 일은, 그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불굴의 의지를 느끼게 했다.

-<윤근수의 시사본색>, 광주지역 아파트 이대로 좋은가

학동 재개발 붕괴 사건을 계기로, 세 차례에 걸쳐 광주 아파트의 공급과 가격 문제, 아파트 높이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는 일이 참신했다. 광주지역의 상당수 언론을 건설사가 소유하고 있는 마당에, 광주 건축 문제를 다루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학동 재개발 붕괴 사건 같은 큰일이 터졌는데도 그렇다. 그래서 광주MBC의 아파트 심층 취재는 돋보였다.

고층아파트 때문에 잃어버린 조망권, 소방문제에서부터 도심열섬현상, 교육문제까지, 여러 각도에서 새로운 고층 아파트 탄생의 문제를 다뤘다. 새로 짓는 아파트 건축의 방향도 새로 짜야함을 알려줬다. 이를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도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한다.

전주시의 조례와 전주 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안 부결 등의 사례, 대전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숙의 과정을 거치는 사례, 뉴욕 시티 플래닝 커미션의 회의가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로 참여를 유도하는 사례를 취재하여, 광주 아파트 건축 과정의 현주소를 볼 수 있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의 비공개를 현장에서 들려준 것은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아파트 건축은 입주민의 편리만 따져서는 안 되고, 주변인들의 이해관계도 살펴야 한다는 사실, 부동산 욕망에 대한 제도적 문제를 보도함으로써, 공동체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좋은 기획이었다.

□ 김유선 위원

-<윤근수의 시사본색>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8월 22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홍준표 의원을 초대하여 본인의 소신 있는 발언과 7대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공정성 회복을 위한 공약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상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있었다. 한편으로 호남 유권자들에게 국민의힘 홍준표에게 지지를 해주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본인의 공약 내용 중 공정성 회복을 위한 공약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었다.

-<윤근수의 시사본색> 교원위탁채용, 사학법 개정(8월 29일)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을 넘어 교육계로 이어지는 내용을 담았다. 핵심은 교원채용을 교육감 위탁으로 하느냐를 두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립재단의 경우 학교설립의 이념과 취지에 맞게 교육과 채용이 공공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실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부실 사학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더 집중 있게 이야기하고 보완하거나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아쉬웠다.

-<윤근수의 시사본색> 광주글로벌모터스 첫차 출시(9월 11일)

전국의 많은 우려점을 안고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9월 14일부터 온라인 판매가 시작된다고 한다.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새로운 일자리 패러다임을 시장님을 통하여 들을 수 있었다. 23년 만에 국내에 자동차 생산에 관련된 공장이 광주에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많은 관련된 일자리가 광주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고민이 들었기도 했다. 그 많은 일자리 창출에 장애인도 함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들은 함께 상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 어느 위치에서든 공정과 생산과정에서 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같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경영의 철학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의무 고용을 못해 고용부담금으로 대신 할 것이 아니라 진정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에 장애인도 당당한 근로자로 설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협력업체들도 포함하여 함께 상생하여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자리매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 어떤 발전을 할 것인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내용이었다.

□ 김형순 위원

-광주 공항 이전 관련 뉴스를 보니 전남도가 민간, 군 공항 연계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오래된 쟁점인 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와 전남도가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해 가도록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여 시민단체만의 목소리가 아닌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 이번에는 꼭 합의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제 우리 지역도 실리를 추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상생의 합의를 하고 더 큰 것을 얻어 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류한호 위원장

-민주당 대통령선거 관련 보도 - 뉴스, <윤근수의 시사본색>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과 대담을 연속적으로 다뤘고, 뉴스에서는 후보들의 경쟁 관련 보도뿐만 아니라 정책 관련 보도를 하여 희망적인 모습을 보였음. 그러나 9월 5일 여야대선 분석과 전망은 시기적으로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민주당 당내경선에서 나타나는 경쟁상황에 지나치게 집중한 것으로 보임. 전반적으로 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관심 없었다는 한계를 보임. 적어도 민주당 경선에서 전국적인 정책이나 지역 정책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함. 결국 경마식 선거보도의 한계를 벗어나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정책정보 중심보도가 이루어지지 못함.

-<윤근수의 시사본색> 아파트 중심도시 광주 연속 심층보도

광주민간공원 아파트 관련 배경 정보, 광주 시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관련 정보, 아파트값의 이상 상승추세, 끝없이 대량으로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관련 정보,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주택 보급 추세와 예상되는 수요 사이의 불균형 문제, 아파트 초고층화와 아파트 공급 과잉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활동 등에 관하여 3차에 걸쳐 집중적으로 종합 심층해설보도를 함.

이 프로그램은 아파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심층보도와 더불어 지역 아파트와 부동산 시장의 부익부빈익빈 현상과 미래에 관해 보도함으로써 시민들의 우려와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임.

특히 9/19 <시사본색>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조한 것은 매우 바람직함.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특정한 이슈에 대해 심층보도를 함으로써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은 더욱 다양하게 기획·제작될 필요가 있음

□ 정은진 위원

1. 주 1회, 책소개 코너

- 마을 단위 도서관, 시민단체(ex. 광주지속협/ NGO센터)에서 책읽는 소모임 지원하고 있는 내용 소개
- 지원 대상 선정된 소모임의 관심 주제, 추천도서 소개
- 월 단위 또는 분기별 주제 정하고, 책임자이다 싶은 게스트 초대해 주제에 맞는 책 소개하기(주1회)

2. 기후비상사태, 광주시민 실천운동 사례 소개

- 시민 RE100 운동 - 내쓰전 내만쓰
- 제로 웨이스트 - 이공카페, 아이쿱, 주민센터

□ 최영호 위원

-<오매 전라도> “한가위만큼 푸짐한 인정 「광주 대인시장」

우리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인 말바우 시장, 양동시장에 이어 대인시장을 소개하며 주제의 연속성을 통해 각 시장의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어 흥미를 느꼈다. 시장 내 상가에서 상인들이 노력으로 제품을 만드는 모습은 생생한 현장감과 더해 판매 제품에 상인들의 정성과 노력이 고스란히 녹아있음을 느끼게 하였다. 더불어 금번 방송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방문객이 감소한 지역 전통시장에 시민들의 방문을 독려하며 상생의 메시지를 함께 담아 그 의미가 더욱 빛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주변 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정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이번 명절에는 전통시장 방문해볼까?”라는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훌륭한 장치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리포터가 강정 만들기를 체험하는 장면에서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참여하는 모습은 현 시국에 다소 부적절하였으며 자칫 전통시장의 위생부문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어 향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최정욱 위원

-<윤근수의 시사본색> 영광레미콘 노사갈등과 불량 콘크리트 타설의혹

2020년 4월 영광군 교각 건설 공사 시 불량 콘크리트가 타설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수면 위에 올라온 것은 1년 이상 시간이 흐른 2021년 5-6월입니다. 올라오게 된 배경도 레미콘운송사업자와 레미콘회사와의 분쟁에서 레미콘 운송사업자의 지지를 위해서 민주노총에서 고발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극적 타결을 이루었고 조건으로 양측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했다는 내용입니다.

영광레미콘 노사갈등 : 특수형태 근로자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가 숙제입니다. 레미콘 운송사업자가 어떻게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고 지원을 받는 건지 설명이 부족했고, 불량 콘크리트 타설 의혹에 대한 초점이 아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군 교각을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인데 만약 갈등과 고발이 없었다면 이 문제는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 합의 조건으로 모든 고소를 취하했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해 보입니다. 시사 초점이 정말로 부실공사였는지, 아니면 민주노총과 운송사업자들의 득어망전이었는지, 영광군은 문제해결을 위해 정확한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인지, 영광군민과 시청자의 입장에서 초점이 아쉽습니다.

-<광주MBC 뉴스투데이> 빅데이터 특

AM 7:31경 빅데이터를 통한 코로나19 이후 단어감성분석에서 긍정어와 부정어를 분류한 자막이 나옵니다. 부정어를 대표하는 단어에 “어려움”, “어렵다” 등과 함께 “장애인”이 나옵니다. 장애인이란 단어가 부정어에 속하는 건가 의문이 듭니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부추기는 건 아닌지, 또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봤을 때 어

떤 생각이 들지 역사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문철 위원**

-<오매 전라도> 뉴스 읽어주는 남자(9.8) 대선 후보 경선 시작, 호남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통령 후보 경선이 진행되는 중, 하지만 민주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에 대한 그랜드 공약이 없음을 지적을 언급한다. 후보들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는 하지만 현 정부와 광주 전남의 현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새롭게 호남의 판을 바꿀 그랜드 공약이 없다는 진단이다.

“과거부터 광주전남이 대선후보에게 내놓는 청구서 자체가 너무 빈약했다. 호남의 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민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서 대선 공약화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지역 방송으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어도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민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모여서 어떻게 의견을 모을 것인지까지, 아니면 다른 광주 전남 정치인들이 광주전남의 발전을 위해 대선 후보에게 제시할 것을 꼬집었어도 좋을 것 같다.